
2025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

2024. 8.

목 차

[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]

1. 생계급여를 3년 연속,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. 1
2. 취약계층의 사회이동성 개선 2
 - 2-1. 장학금 사각지대, 국가가 줄여나갑니다. 2
 - 2-2.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. · 3
3. 노인과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 4
 - 3-1.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 공급합니다. 4
 - 3-2.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은퇴 걱정을 덜어드립니다. 5
4. 최종증 등 장애인 대상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 ... 6
5.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인 25.2만호를 공급합니다. 7
6. 근로자 이음센터가 노동약자를 원스톱 지원합니다. 8

[경제활력 확산]

7. 국가연구개발 DNA 혁신, FAST R&D를 키웁니다. 9
8. 혁신을 가속화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. 10
9. 소상공인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 11
10. 新수출주력산업 육성으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갑니다. 12
11. 첨단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정부 13
 - 11-1.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합니다. 13
 - 11-2. AI 혁신 생태계로 글로벌 테크 기업을 육성합니다. 14
 - 11-3. 똑똑한 정부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 15
12. 역대 최대 규모의 농업 직불제 예산을 지원합니다. 16

목 차

[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]

- 13.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지원! 과감한 투자로 저출생을 극복하겠습니다. 17
- 14. 청년 도약 지원 18
 - 14-1. 주택드림대출 출시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, 고립·은둔 청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 ... 18
 - 14-2. 청년 일경험 지원 인원을 약 6만명 확대하고, 미취업 졸업생의 '내 일' 찾기를 지원합니다. 19
- 15.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20
 - 15-1. 지역중심 대학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. 20
 - 15-2. 3·2·1 교통혁신과 교통불편 제로(0)에 집중투자합니다. ... 21
 - 15-3.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. 22
- 16.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. 23

[안전한 사회, 글로벌 중추 외교]

- 17. 국격에 걸맞는 ODA, 우리기업·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. 24
- 18.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는 군 복무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. · 25
- 19. AI를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수사로 일상 속 마약·지능형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. 26
- 20. 전기차 화재·극한호우,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 27

1. 생계급여를 3년 연속,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습니다.

◆ 누적된 물가부담으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 경감 필요*

* '20~'23 누적 물가상승률(한은, '24.5월) : (소득 1분위) 15.5% (5분위) 14.2%

취약계층의 최후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강화

① **(생계급여)**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증가율(6.42%, +141만원) 인상
 ⇨ 최근 3년 인상폭(年498만원)은 지난정부(年235만원)의 2배 이상

② **(의료급여)**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*하여 0.3만명 신규 지원
 ⇨ 신규 수급자는 연간 28만원 상당의 의료비 절감 혜택

* 자녀가 수급자에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비용 축소(소득의 15/30%→10%)

③ **(주거급여)** 그간 동결된 주택 수선비용을 5년 만에 29% 인상

구분	'24년	'25안	의미·효과				
① [생계] 생계급여 3년 연속 역대 최대폭, 6.42% 인상							
최대 급여액 (4인)	2,200만원/年 (183.4만원/월)	2,342만원/年 (195.1만원/월)	○ 연간 +141만원 지원 확대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최근 3년</td> <td>지난정부 5년</td> </tr> <tr> <td>총 498만원 ↑</td> <td>총 235만원 ↑</td> </tr> </table>	최근 3년	지난정부 5년	총 498만원 ↑	총 235만원 ↑
최근 3년	지난정부 5년						
총 498만원 ↑	총 235만원 ↑						
② [의료]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(부양비 비율 축소)							
부양비 제도	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시 부양비 최대 30% 부과	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시 부양비 10% 부과	○ +0.3만명 신규 지원 ○ 연간 △28만원 의료비 절감 (평균 49→21만원)				
③ [주거] 5년만에 취약가구 주택수선비 대폭(29%) 인상							
주택 수선비	최대 1,241만원	최대 1,601만원	○ 최대 +360만원 추가 지원				

2-①. 장학금 사각지대, 국가가 줄여나갑니다.

- ◆ 전체 200만 대학생 중 장학금 지원대상 절반에 불과
 - * 현재 8구간 이하(100만명, 전체 대학생의 50%)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中
- ◆ 대학생 주거비 지원 선호도 높으나 관련 지원 부족
 - * 대학생·대학원생 청년정책 우선순위('20.3월, 보사연)
 - : 일자리(27.9%) > 주거(21.7%) > 생활(20.7%) > 교육(15.4%)

장학금·생활비 확대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

- 1] **(국가·근로장학금)** 국가장학금은 지원대상 +50만명 대폭 확대하여 전체 대학생(200만명)의 75% 수준까지 지원(150만명)
 - 교내·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인원 20만명으로 대폭 확대(+6만명)하여 일과 학업을 병행 지원
- 2] **(주거안정장학금)**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저소득(기초·차상위) 대학생(약 4.2만명)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지원(월 20만원)
- 3] **(꿈사다리 장학금)** 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·고생에서 기초·차상위·다문화 가구 우수 초등학생(5~6학년)으로 확대(+1천명)

구분	'24년	'25년	지원 내용
① [국가·근로장학금] 지원대상 +50만명 ^{국가장학금} , +6만명 ^{근로장학금}			
국가 장학금	100만명	150만명	○ 지원구간 8→9구간 확대 ○ 100 ~ 200만원(연간)
근로 장학금	교내 7.5만명 교외 6.5만명	교내 13.5만명 교외 6.5만명	○ (교내) 시간당 10,030원 ○ (교외) 시간당 12,430원
② [주거안정장학금]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 주거비 지원			
주거안정 장학금	-	4.2만명	○ 월 20만원
③ [꿈사다리 장학금] 장학금 지원 대상 저소득층 초등학생(5~6학년)으로 확대			
꿈사다리 장학금	2천명 (중1~고3)	3천명 (초5·6~고3)	○ 초 15, 중 25, 고 35만원(월)

2-②.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.

- ◆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성 저하*
* 소득 1분위의 5년간 동일 분위 유지비율(%) : ('09) 7.2 → ('21) 12.3
- ◆ 기초수급자가 민간 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하는 비율도 하락*
*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 성공률(%): ('15) 33.7 → ('23) 24.8

취약계층 대상 “소득 + 자산 + 자립” 패키지 지원

- 1] **(소득) 자활근로 확대**(인원 6.9→7.2만명, 급여 3.7% 인상)와 함께 수급대상에서 벗어날 경우,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 지급
- 2] **(자산형성) 차상위 계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II 정부지원 확대***(월평균 10→20만원, 정부와 가입자 1:2 매칭)
* 생계·의료수급자는 대해서는 희망저축계좌I 지속 지원(월30만원, 1:3 매칭)
- 3] **(자립지원) 저금리(2%) 청년자립자금 400억원 신규 공급**(1.3만명)

사업명	'24년	'25안	의미·효과
① [일자리] 근로유인·기회 확대를 위한 자활근로 확대 및 자활성공금 신설			
자활근로	6.9만명 시장진입형123.9만원 (전년비 +2.5%)	7.2만명 128.4만원 (전년비 +3.7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급여액 월 +4.5만원 증가 ○ 최저임금의 80% 수준 보장
자활 성공금	-	최대 150만원 ^{신규}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탈수급 유인 제고
② [자산형성] 희망저축계좌 정부 매칭 인상 등 목돈 마련 뒷받침			
희망저축 계좌II	월평균10만원 매칭	월평균20만원 매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만기(36개월) 수금액 +360만원 * 720만원+α → 1,080만원+α
③ [자립지원] 저금리 청년 자립자금 신규 공급			
청년 자립자금	-	400억원 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저소득 미취업청년 등 대상 2% 금리 자립자금 지원 * 1인당 12백만원 한도

3-①.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 공급합니다.

◆ 베이비부머(‘55~’74년생) 본격 은퇴, 노인인구 증가 추세* 등 감안시, ‘안정적 노후 소득’ 지원 필요

* 노인인구(만명): (‘22) 898 (‘23) 944 (‘24) 994 (‘25) 1,051

☞ 1차(‘55~’63년생) 베이비부머 705만명, 2차(‘64~’74년생) 베이비부머 954만명

☞ ‘25년에는 1960년생 86만명이 노인 인구로 새롭게 편입될 전망

“소득 보장 + 활력 제고 + 돌봄 강화” 패키지

① **(소득)** 어르신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인구 10%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를 확대(103→110만), 기초연금 단가 인상(33.4→34.4만원)

② **(활력)**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대(8→20개) 및 노인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(8천명)

○ 비상상황에 대비한 독거노인 응급호출기 보급 확대(27→30만대)

③ **(주거)** 고령자 복지주택을 대폭 확대(年1→3천호)하고, 복지주택 단지 입주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신규 제공(4개소)

○ 6.8만개 경로당 냉난방비·양곡비 지원 확대(+26.4만원)

구분	사업명	'24년	'25년
소득 보전	노인 일자리	103만개	110만개
	기초연금	33.4만원	34.4만원
활력 제고	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	8개소	20개소
	응급호출기 보급	27만대	30만대
	노인 전용 평생교육바우처	-	8천명
주거 강화	고령자 복지주택	年 1,000호	年 3,000호
	복지주택 인프라 연계 돌봄	-	4개소 ^{신설}
	경로당 지원	年 268.9만원	年 295.8만원

3-②.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은퇴 걱정을 덜어드립니다.

- ◆ 핵심 노동인력인 중장년층이 노후대비 없이 조기퇴직(평균 52.8세)
 - * 전체 인구의 18.6%(954만명)인 2차 베이비붐 세대('64~'74생) 은퇴 시작
- ◆ 퇴직 후 직업훈련 참여가 저조하고, 경력과 무관한 재취업 경향
 - * 직업훈련 참여비중: (20대) 34.7 vs. (50대) 17.4 (60대이상) 11.8%

중장년의 경험과 지혜를 살려 「일자리·소득 레벨업」 달성

- 1 [경력관리] 중장년 내일센터 확충(35→38개소), 생애경력설계·전직스쿨 등 내일패키지를 확대(6.1→6.5만명)하여 준비된 은퇴 지원
- 2 [역량강화] 중장년 인턴제 **신규**,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**신규** (5개과), 뿌리산업교육센터 **신규** (3개소)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 지원
- 3 [계속고용] 정년 도달 근로자의 일부를 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여 계속고용제도의 자율적 확산 촉진
 - * 계속고용제도(정년 연장, 정년 폐지, 재고용)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月30만원, 3년간 지원

단계	정책 목표	지원 내용	'24년	'25년
 경력+	체계적 경력관리	· 생애경력설계, 전직스쿨, 재도약 프로그램 등 중장년 내일패키지 확대	6.1만명	6.5만명
 역량+	직업훈련 통한 역량강화	· 폴리텍 신중년 특화 학과 개편 신규 · 신중년 특화과정 지원인원 확대 · 폴리텍 뿌리산업 교육센터 구축 신규	- 2,550명 -	5개과 2,800명 3개소
 일자리+	중장년 구직자↔ 구인기업 매칭	· 중장년 내일센터 추가 확충 · 중장년 인턴제 신설 신규	35개소 -	38개소 910명
 60+	정년도달 후 일자리 유지	·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	희망자 전원	일부 재고용

◆ (예시) 인쇄업계 전산관리 부장으로 퇴직한 A씨(52세)는 중장년 내일센터 상담을 거쳐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(사물인터넷 SW)을 이수한 후 IT 중견기업에 재취업 성공

4. 최종증 등 장애인 대상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.

- ◆ 최종증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존재*
 - * 예 : 보호자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 지원 미비, 24시간 치료가능한 거주시설 부재
- ◆ 장애인은 소득과 근로기회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상황*
 - * (월소득) 평균 가구 대비 63.3% / (취업률) 장애인 37.2%, 전체 63.3%

“맞춤돌봄 제공 + 일자리 확대 + 일상 지원” 조합

- 1 (돌봄) 지속 의료지원이 필요한 최종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* 및 보호자 부재에 대비한 긴급돌봄센터(발달) 신설
 - * 기존 장애인 일반 거주시설 →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으로 전환
 - 성장기 장애아동 행동발달 지원을 위해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연령 상향(만6 → 9세 미만, +1.8만명)
- 2 (일자리)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+12만명 확대(63.3→75.6만명)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(1.3→1.4만명)
 -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는 직접일자리(공공) 확대(3.2→3.4만개)

<장애인 민간·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>

	고용장려금	취성패	직접일자리(공공)	
'24년	63.3만명	1.2만명	3.2만명	67.7만명
'25안	75.6만명	1.3만명	3.4만명	80.3만명

- 3 (일상) 장애인 개인선택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* 시범사업 전국 확대(8개→17개 시도)
 - * 개인별 장애인 활동지원액의 일부(20%)를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활용
 - 온·오프라인 동시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생활 편의성을 대폭 강화

5.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인 25.2만호를 공급합니다.

1 “역대 최대규모” 공공주택 25.2만호^{임대15.2+분양10.0} 공급



2 주택유형별 공급장애 해소를 위한 “맞춤형” 기반조성

 (非아파트) 아파트수준의 환경개선		 (아파트) 사업성제고로 속도감 있는 공급	
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아파트 대비 주거환경 열악 & 전세사기로 입주 선호 낮음 	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실적 저조
주거 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주민선호를 반영한 편의시설 (주차장, 공원) 설치 지원(뉴·빌리지) ✓ 2년간 공공 非아파트 16만호를 공급 → 전세사기 리스크 해소 	공급 속도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22조원 수준의 미분양 매입확약 (수도권 공공택지 대상, 공공분양 활용) ✓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용자로 노후도심 재정비 속도제고

3 소득·계층별 “빈틈없는” 주거복지 지원

청년	신혼부부	고령층·취약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청년 공공임대 3.6 → 3.8만호 공급 ✓ 청년 주택드림대출 출시 (3.3조원 규모) ✓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확대(5 → 7.5천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신혼부부 공공임대 2.4 → 4.9만호 공급 ✓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든든전세 3만호 공급 ✓ 신혼 버팀목,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고령층 공공임대 0.6 → 0.7만호 공급 ✓ 고령자 복지주택 3배 확대(1 → 3천호) ✓ 수급가구 수선유지급여 5년만 대폭 인상(+29%)

6. 근로자 이음센터가 노동약자를 원스톱 지원합니다.

- ◆ 미조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어 임금·복지 등 열악
 - * 노조조직률: 30인 미만 사업장 0.1% vs. 300인 이상 사업장 36.9%
- ◆ 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는 고용 불안정, 안전사고 노출
 - * 노무제공자 사고사망자: ('19) 14 → ('21) 36 → ('23) 83명

근로자 이음센터 2배수준 확대 + 취약근로자 일자리 상향이동

- 1] **(인프라)** 분쟁조정·특화교육·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를 4개소 확대(6→10개소)
- 2] **(생활안정)**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체불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을 확충하고, 생활안정자금 용자 대상을 2배 이상 확대
 - * 대지급금 지원: 8.8→10.5만명, 생활안정자금 용자: 1.6→3.6만명
 - 원·하청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강화
- 3] **(일자리)** 취약근로자가 안정적 일자리로 상향 이동할 수 있도록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하고, 쉼터와 교육을 통해 안전 제고
 - 일용직 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상향(400→500만원)하고, 노무제공자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설

원스톱 지원 인프라	생활안정 지원강화	일자리 상향이동
근로자 이음센터 (6 → 10개소)	임금체불 대지급금 지원 (8.8 → 10.5만명)	신규 노무제공자 Step-up 프로그램(350명)
신규 분쟁조정협의회(100회)	체불청산 용자 지원 (0.6 → 0.9만명)	일용직근로자 내일배움카드 한도 인상 (400 → 500만원)
신규 노동약자 특화교육 (노동법 특강 등 4종)	생활안정자금 용자 (1.6 → 3.6만명)	노무제공자 쉼터 설치 (37 → 45개소)
신규 노사협의회 설치지원 컨설팅(25개소)	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(86 → 154개)	신규 노무제공자 사고예방 교육·컨설팅 (10개 단체)

7. 국가연구개발 DNA 혁신, FAST R&D를 키웁니다.

1 Frontier

게임체인저, 세계 3대 강국으로 갑니다.

Before '24년 2.8조원

- ✓ GPU, CPU 1세대 AI 컴퓨팅 경쟁
- ✓ 부처·사업별 분절적 BIO 추진
- ✓ 마중물 단계 기초 양자 연구

After '25안 3.5조원 (+0.7조원)

- ✓ 국산 NPU, PIM 차세대 AI 컴퓨팅 Boost-up
- ✓ 다부처 협업·연계를 통한 BIO 원팀 프로젝트 가동
- ✓ 양자시대를 여는 Quantum Jump 준비

- ◆ **(K클라우드)** 국산 AI컴퓨팅(370억^{산부}), **(mRNA백신)** 신종 감염병백신 국산화(290억^{산부}), **(양자플래그십)** 양자컴퓨팅 원천기술(252억원), **(기타)**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(604→1,118억)

2 Alliance

R&D 선도국과 함께 기술 역량을 높입니다.

Before '24년 1.8조원

- ✓ Bottom-up 방식 사업 기획
- ✓ 소규모·단발성 과제 중심
- ✓ 낮은 현장 수요 대응성

After '25안 2.2조원 (+0.4조원)

- ✓ 전략적 기획의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강화
- ✓ 기술선도국과의 중장기 다자 연대 확대
- ✓ 현장 수요 적기 대응을 위한 특화트랙 신설

- ◆ **(보스턴코리아)** 글로벌 TOP 바이오 공동연구(854억→1,470억, 79→135개 과제, 12:1 경쟁률)
- ◆ **(호라이즌-유럽)** 아시아 최초 준회원국(91억^{분부}), **(ARPA-H)** 바이오 난제연구(495억→701억)

3 Support

학생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합니다.

Before '24년 0.6조원

- ✓ 학부생 중심 대통령 과학 장학금
- ✓ 석사과정 연구장려금 부족
- ✓ 학생 인건비간 편차 ↑

After '25안 0.7조원 (+0.1조원)

- ✓ 대통령과학장학금 확대(120→1,215명, 석사 특화^{산부})
- ✓ 석박사 연구장려금 확대(2,472→5,131명)
- ✓ 이공계 한국형 Stipend 도입(연구생활장려금)

- ◆ **(한국형 Stipend)** 이공계 석박사 인건비 보장 신설(600억^{산부}, 석사 月 80, 박사 110만원 수준)
- ◆ **(석박사 연구장려금)** 2배 확대(244억→552억), **(석사 대통령장학금)** 저소득 특화트랙 신설(1천명)

4 Transformation

혁신도전 R&D, 우수연구는 더 우대합니다.

Before '24년 0.7조원

- ✓ 실패를 기피하는 소극적 연구
- ✓ 관성화된 보편성 중심의 연구
- ✓ 짜여진 사업구조내 경직적 연구

After '25안 1.0조원 (+0.3조원)

- ✓ 전문 PM 중심의 개척형 연구 활성화
- ✓ 토너먼트 방식의 경쟁형 체제 도입·확대
- ✓ 예타 면제 등 특수성 고려, 연중 상시과제 가능

- ◆ **(개척연구)** 소규모 도전적 연구(150개^{산부}), **(산업 알키미스트)** 신기술경쟁형 확대(282억→481억), **(차세대 6G)** 원천기술개발(210억→870억), **(미래 판기술)** 경쟁형 사업화과제(50억^{산부}, 예타 면제)

8. 혁신을 가속화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.

1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



한국형 Station-F 본격 조성

- ✓ 신규글로벌 대기업, 국내·외 스타트업 및 투자자가 모이는 혁신 공간 조성 ('25.12 개소 목표)
- 서울 홍대 인근 → 기술 스타트업, 대학, 핵심 인재, 교통 접근성 우수



글로벌 기업과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

- ✓ 글로벌 선도기업*과 유망 스타트업 협업 매칭, 공동 사업화 지원
- * Google, Intel, Nvidia 등
- 정부사업화(최대 2억원), 해외 진출 지원
- + 글로벌기업 컨설팅, 마케팅 등 지원

2 민간과 지역 주도의 혁신

중소기업 점프업

- ✓ 신규유망기업 100개 선별하여 컨설팅·바우처·보증·용자 연계 지원 (점프업 패키지)
-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

민관 협력

- ✓ 대·중견기업과 스타트업 협업 + 네트워킹 지원
-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과 수요 기업 매칭(200개社)

지역 역량

- ✓ 지역기업 투자를 위한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 2배 확대(0.1 → 0.2조원)
- ✓ 신규제조기업 AI 활용을 위한 제조AI데이터센터 3개소 구축

3 초격차 신산업 분야 육성

초격차 스타트업 Level-up

- ✓ 신규팍리스·AI 등 초격차 기술분야 전용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(90개사)
- 기술사업화, 시제품 제작, PoC 등 3년간 최대 8.4억원 지원

글로벌 투자, R&D 지원 확대

- ✓ 기술창업 기업에 정부 R&D를 매칭하는 글로벌 TIPS R&D 신설
- * VC가 先투자하는 80개 기업에 3년간 최대 12억원 지원
- ✓ 중소기업 R&D 사업화 전용 용자 전년대비 확대 +0.1조원(0.2-0.3조원)

9. 소상공인 희망드림(Dream)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.

- “부담 덜어주기 + 역량 키워주기 + 새출발 응원하기” -

1. 어려운 소상공인

금융비용, 배달·택배비 등 경영부담 완화 추진

- (금융비용)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 및 신용취약·경영애로 소상공인 용자 확대(0.7 → 0.85조원)
 - * ①정책자금 상환연장 최대5년, ②전환보증 공급(효과상환기간 연장), ③대환대출 지속 지원
- (경영비용) 신규 영세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*(연 30만원), 키오스크·서비스형 SW 등 스마트 기술 보급 확대(+0.5만개)
 - * 연매출 1억4백만원 ↓, 총 업종 68만개 대상(25년 한시 지원)

2. 유망 소상공인

소기업으로의 스케일업 지원

-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전용자금 신설 및 e커머스와 협업 지원

구분	내용	지원규모
신규 전용자금	①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* 전용 용자 신설 * 업종별 매출액·보유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	0.2조
	②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 대상 성과연동 보증 공급	0.2조
	③ 민간 선투자 받은 소상공인에 사업화 자금 최대3배 지원(2억 한도)	300억
신규 e커머스 협업	① K-커머스론(e커머스 입점 소상공인 대상 용자)	0.1조
	② TOPS 프로그램(플랫폼사와 1:1 자금 매칭,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)	3천개

3. 한계 소상공인

채무조정 + 재도전 지원 강화

- (채무조정)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(30 → 40조원+a)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* 제공
 - * 폐업자가 재취업 등 교육 이수 시 원금감면을 10%p 상향
- (재도전) 폐업 수반 비용 지원 및 재취업·재창업 연계 확대

폐업 지원	재도전 준비	구직·재창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* 최대250→400만원, 3만명 ▶ 컨설팅, 법률자문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전교육 참여수당(60만원) ▶ 심층교육 훈련 수당 (최대6개월, 월 50~110만원) 재창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경영진단, 기본교육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취업자 성공수당(최대190만원) ▶ 고용주 고용촉진장려금 (1년간, 월 30~60만원) ▶ 사업화 자금(최대2천만원, 0.1만명) ▶ 1:1 전담PM 매칭

10. 新수출주력산업 육성으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갑니다.

① 원전 — 제2의 원전수출붐 확산을 위한 원전생태계 육성 지원

- (펀드)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0.1조원 규모 원전성장펀드 신설 400억원 신규
- (용자) 원전 중소·중견기업 용자 전년대비 50% 확대 1,000→1,500억원 확대
- (R&D) i-SMR 등 차세대 원전 R&D 강화로 시장 선점 1,630→2,050억원 확대

② 방산 — 수출주도형 방산 생태계 조성으로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

- (펀드) 방산 유망기업·스타트업 지원 K방산 수출펀드(400억원) 200억원 신규
- (중소) 글로벌 방산기업 수출용 제품화 비용 지원(최대 15억원/개사) 77억원 신규

③ K-콘텐츠 — 투자유치·방한유도 등 끊임없는 한류 수출 촉진

- (펀드) 해외 VC가 국내에서 직접 운용가능한 펀드 조성(1,000억원) 400억원 신규
- (메가이벤트) 콘텐츠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"Beyond-K Festa" 신설 80억원 신규
- (방한) K-컬처산업(K뷰티·미용 등) 방한 프로모션·관광상품 판촉 105억원 신규

◆ 정책금융·기업 맞춤형 인프라 조성으로 수출경쟁력 뒷받침

정책금융	인프라 조성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방산 등 대규모 해외수주·전략산업 중소·중견기업 뒷받침 (수은 1,000억원, 무보 800억원) ✓ 수출중소기업 시설·운전자금 용자 2배이상 확대 (1,894 → 3,825억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수출바우처·해외전시회 확대 (0.81 → 0.90만개社) ✓ 해외 주요국 한류박람회 확대 (年 3→5회) ✓ 국내 수출상담회 범업코리아 대형화 (2일/회 → 주간 운영)

11-①. 「반도체 산업 종합지원」 대책을 적극 뒷받침합니다.

① 금융 — 생태계 곳곳 유동성 공급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

- (첨단산업론) 4.3조원 대규모·장기·저금리 설비투자자금 대출 2,500억원 신규
- (생태계펀드) 기존 0.3→0.42조원 확대로 팹리스·소부장 대형화 300억원 신규
- (기술혁신융자) 첨단산업 중소·중견 저금리 R&D 자금 확대 900→1,200억원 확대

② 대규모 R&D —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관련 기술경쟁력 선두

- (첨단패키징) 글로벌협업 연구를 통해 5~10년내 상용화·국산화 지원 178억원 신규
* (사업기간) '25~'31 · (총사업비) 2,744억원
- (K-클라우드) 국산 AI반도체 기반 K-클라우드 풀스택 핵심 기술개발을 통해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력 확보 370억원 신규
* (사업기간) '25~'30 · (총사업비) 4,031억원

③ 인력 — 단기·특화·전문인력 반도체 전분야 미래인재 양성

- (특화대학) 설계(팹리스) 분야 소규모 특성화대학 신설(2개소) 20억원 신규
- (국제협력) 한국-네덜란드간 대학생·재직자가 참여하는 현지 공동 팀프로젝트 사업 신설 50명/年 신규
- (특화분야) 반도체 소부장·후공정 석·박사 전문인력 양성(10개교) 60억원 신규

④ 사업화 — 국내 팹리스 기업 실증·검증·양산 기반 확충

- (스타트업) 초기 팹리스 설계·시제품·사업화 전주기지원(30개社) 84억원 신규
- (실증) AI반도체 기업이 공동활용 가능한 대규모 실증장비 구축 72억원 신규
- (시제품) 첨단공정^{14nm↓} 시제품 지원단가 2배 인상(17→32억원/건) 80→112억원 확대

⑤ 인프라 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속도감 있는 조성 지원

- (국도45호선) 용인산단 관통 국도45호선 이설·확장(4→8차로) 설계비 신규
* ('24.8) 예타면제 ('25) 설계 ('26.下) 착공 ('30) 개통 잠정

11-②. AI 혁신 생태계로 글로벌 테크 기업을 육성합니다.

◆ AI R&D·인프라부터 상용화까지 역동적 AI 혁신 생태계 구현

① 차세대 생태계 선점을 위한 AI-반도체 기술 혁신 ⁽²⁴⁾0.7조 → ^(25안)1.1조

- (AI반도체 초격차) 메모리와 프로세서 통합하는 PIM*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원천기술 확보 등 반도체 초격차 기술 개발(0.4조원)
 - * **Processing In Memory**: 저장(메모리)과 연산(프로세서) 기능을 통합한 신개념 반도체 → 현재의 메모리-프로세서 속도효율 저하·전력 문제 해결 기대
- (AI 기술선도) 범용 인공지능(AGI)* 핵심기술 개발, 공존가능한 신뢰 AI 기술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선도(0.7조원)
 - * **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**: 자가성장, 교감형 소통, 복합인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인간과 유사한 인지 능력·지능을 갖춘 인공지능

② AI 대전환을 위한 민간 중심 AI 생태계 조성 ⁽²⁴⁾0.1조 → ^(25안)0.2조

- (컴퓨팅 인프라) AI시대 新사회간접자본인 AI컴퓨팅 인프라 국산화·규모화*, 산·학·연 AI컴퓨팅 자원 지원** (0.1조원)
 - * 민·관협력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(210억), 장비국산화·인력양성·친환경화 패키지(95억),
 - ** 중소·벤처기업, 대학·연구소 등 AI 연구·개발에 고성능 AI 컴퓨팅 지원(288억원)
- (국민체감 AI) 삶의 질을 개선하는 AI기반 의료혁신 지원*, 성장 잠재력 있는 국민 생활·안전 AI 시장 선점 지원** (0.1조원)
 - * AI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·예후 관리 등 AI·디지털 의료혁신 프로젝트(336억원)
 - ** 국민생활·안전 분야에 국산 AI반도체 4대 실증 프로젝트(298억원)

③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금융·인재 기반 강화 ⁽²⁴⁾0.1조 → ^(25안)0.3조+α

- (금융) 유망 중소·벤처 AI기업을 위한 혁신펀드(1,000억원) 신설, 첨단산업론·생태계펀드로 AI 반도체 금융 지원 강화(+α)
- (인재) 글로벌 인재를 유치·양성하는 AI연구거점 구축(1개소), 대학·기업이 현안을 공동 연구하는 AI융합혁신대학원 확대(9개소)

11-③. 똑똑한 정부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.

◆ AI 기술 도입, 시스템 안정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'원스톱 행정서비스'를 제공하는 '디지털플랫폼정부' 구현

- 1] **(AI 도입)** 대국민 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위해 AI 도입·기반 마련
 - 효율적인 AI 도입을 위해 '망 보안체계 전환* 실증(150억원)', '범정부 초거대AI 공통기반 구현(99억원)'에 신규 투자
 - * 엄격한 망 분리에서 AI 등 다양한 기술 활용이 용이한 망 보안체계로 전환
 - AI 도입으로 서비스시간 단축이 가능한 재판, 수사, 특허심사 등 전문분야는 별도 투자(102억원)
- 2] **(안정성 강화)**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'노후장비 교체 통합구축'에 투자 확대(²⁴1,518 → ²⁵1,733억원)
 - 대규모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사업을 총괄 관리·지원하는 '책임형기술지원센터'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 내 설치
- 3] **(서비스 혁신)** 국민들이 한 곳에서 한 번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간 연계 확대

①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통합시스템		※ 연간 120여만명
Before ▶ 공공임대주택 모집·공고별 서류 준비, 입주 신청 ▶ 신청 후에 자격 검증 진행, 장기간 소요	⇒	After ▶ 1회 신청으로 입주 자격(사전 검증)에 맞는 주택을 맞춤형으로 제공 ▶ 서류 없는 청약, 실시간 청약 실현
② 경찰민원 24		※ 연간 160여만건
Before ▶ 온라인 신청 가능 민원 제한적(63종) ▶ 대국민 웹사이트 산재(23개)	⇒	After ▶ 온라인 민원 대폭 확대(²⁴ 63→ ²⁵ 104종) ▶ 언제(24시간) 어디서나(웹·앱) 하나의 사이트(경찰민원포털)에서 민원 처리
③ 장병체감형 원스톱서비스		※ 연간 20여만명
Before ▶ 각 군별 지원 시 동일 서류 반복 제출 ▶ 신체검사 2회 (19세 병역판정검사 → 입영일자 결정 → 20세 입영판정검사 → 입영)	⇒	After ▶ 반복 입영 지원 시에도 서류는 한번 제출 ▶ 신체검사 1회 (사전 입영일자 결정 → 20세 병역판정검사 → 입영)

12. 역대 최대 규모의 농업직불 예산(3.4조원)을 지원합니다.

◆ 빈번한 재해와 수급 불안정으로 농어가 소득·경영 리스크 확대*

* '23년 기준 농가 평균부채 4,158만원(전년비 18.7% 증가, 역대 최고치)

◆ 고령화 심화*, 영세한 경영규모로 농수산업 경쟁력 확보 저해

* 농어가인구/65세 이상 비율: ('00) 428만명/21.1% → ('10) 323/31.3 → ('23) 218/52.4

농어가 소득안정 및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

- (소득 안정) 농가 소득의 최대 85%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, 직불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로 확대(3.4조원)
 - 면적직불금 단가를 제도 도입('20년) 이후 최초 인상하고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로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
 - 친환경수산물직불 확대 등 수산직불제 강화(1,118억원)

구 분	내 용	'24년	'25년
수입안정보험	대상품목	9개	15개
	가입률(가입 재배면적/전체 재배면적)	1%	25%
공익직불금	면적직불금 평균단가(진흥 논·밭)	197만원/ha	207만원/ha
	전략작물직불 대상면적	157.5천ha	176천ha

- (경쟁력 제고) 농수산업 스마트화·청년농 육성·수출산업화 지원 강화
 - 대규모(10ha이상)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 정착을 위해 농어촌청년주택 13개소 추가 건립
 -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 등을 확대하여 수출시장 개척 지원

구 분	내 용	'24년	'25년
청년농 육성	농어촌청년주택	8개소	13개소
	영농정착지원금 수혜인원(누적)	17,600명	22,600명
수출산업화	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	387개사	460개사

13. 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지원! 과감한 투자로 저출생을 극복하겠습니다.

- ◆ 육아기 소득 감소, 여성중심 육아, 경직적 근로환경 등 일·가정 병행이 어려운 여건으로 저출생 문제 심화
* 육아휴직 사용률('22년): 남성 6.8%, 여성 70.0%

일·가정양립 투자 역대 최대규모 증가 (+1.7조원)

- 1] **(맞돌봄)**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월 100만원 인상(150→250만원)
 - 육아휴직급여의 25%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을 폐지하여 휴직 기간 중 소득이 보장되도록 지원
 - 부모 맞돌봄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(5→20일)
- 2] **(기업부담)** 사업주와 동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(80→120만원)하고,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(월20만원)* 신설
* 육아휴직시 업무 분담한 동료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(월20만원)
- 3] **(긴급돌봄)** 유치원 방학, 초1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단기 육아휴직(2주)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
 - 맞벌이 가정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(65개소)에 긴급돌봄 서비스(일시돌봄, 병원동행, 하원지도 등) 신설

부모 맞돌봄 지원

- ▶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
- ▶ 사후지급금 폐지
- ▶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(5→20일)
- ▶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규

근로환경 유연화

- ▶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
- ▶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요건 완화
- ▶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

긴급돌봄 지원

- ▶ 단기 육아휴직(연 1회, 2주) 신규
- ▶ 긴급돌봄 채용 프로그램 신규

기업 부담 경감

- ▶ 대체인력지원금 신설·확대
- ▶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규

14-①. 주택드림대출 출시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, 고립·은둔 청년이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
- ◆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증가, 세대 간 자산격차 확대
 - * 청년 월세보증금 3년간('19~'22) 18.8% 증가, 세대간 자산격차 '191.6→'222.3억원
- ◆ 고립·은둔청년 최대 약 54만명 추정, 청년 고독사 증가
 - * 10~30대 고독사: ('17) 204 → ('21) 219명

- 1 **(주택드림대출)** 청년 전용 저리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꿈 실현
 - 분양가의 80%까지 저리(최저 2.2%)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여 이자부담 감소(年 800만원 수준 절감)
- 2 **(청년도약계좌)** 저소득 청년에 대한 목돈 마련 지원을 강화
 -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 기여금 매칭지원 한도를 상향(月 40~70 → 70만원)하여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
 - ※ 현행 소득구간별 매칭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3%의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
 - * (예) 年소득 2,400만원 이하 청년의 경우, 月 최대 정부 기여금 2.4→3.3만원
 - ↳ 월 70만원 납입시, 기여금 = 40만원×6% + 30만원(현행한도 초과분)×3%
- 3 **(고립 방지)** 고립·은둔청년의 사회 적응과 정서적 안정 지원
 - 고립·은둔청년 대상 온라인 발굴체계를 마련하고, 정서·심리 치료와 자조모임 등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(1천명)
 - 인문학, 문화예술을 통한 마음치유를 지원하여 디지털 과몰입, 고립·은둔 등 정서적 취약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

	'24년	'25년	주요 내용
주택드림대출	-	7,508억원	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 1.1만명 지원
청년도약계좌	3,682억원	3,750억원	정부 매칭한도 상향(月40~70→70만원)
고립·은둔청년 지원	24억원	29억원	발굴~자립까지 원스톱 지원
문화 치유 프로그램	36억원	58억원	디지털 과몰입, 고립·은둔청년 등 대상 문화 치유 프로그램 운영
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	-	11억원	1인 청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안부문자, 멘토링 등 지원

14-②. 청년 일경험 지원 인원을 약 6만명 확대하고, 미취업 졸업생의 '내 일' 찾기를 지원합니다.

- ◆ 청년 고용지표는 양호하나, 첫 직장을 구하는 데 장기간 소요
 - * 청년실업률 역대최저(24.7월), 첫 취업 소요기간: ('22) 11 → ('24) 12개월
- ◆ 잦은 이직, 단기 일자리 증가 등 청년 취업애로는 심화되는 반면,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지속
 - * 청년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율(%): ('20) 22.7 → ('24.1-5) 40.8

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+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

1] 청년 일경험 1만명 확대(4.8→5.8만명, +469억원)

- 기업의 경력·수시채용 선호에 따라 직무경험의 중요성 증가
→ 중장기·프로젝트 중심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

	전체	국내인턴	해외인턴	프로젝트	ESG	기업탐방
'24	48,000명	18,500명	500명	6,000명	8,000명	15,000명
'25	58,000명	23,000명	1,000명	10,000명	9,500명	14,500명

2] 미취업 졸업생과 구직단념청년 지원 강화(7.2만명, +299억원)

- '쉬었음' 청년(44.3만명)이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굴·관리하여 맞춤형 일자리 지원
 - **신규**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하고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취업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(6만명)
 - 자신감이 결여된 구직단념청년의 구직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확대(0.9→1.2만명)
 - * 5~25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매달 50만원의 참여수당 지급

3] **신규** 특화 훈련, 도약장려금(사업주+청년), 기술연수(3~6개월)를 지원하는 빈일자리 채용 3종 패키지 신설

특화 훈련	특화 일자리도약장려금	기술연수
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·취업수당 추가지원(320→480만원)	⇒ 사업주 지원요건 완화(720만원) 청년 근속 인센티브(480만원)	⇒ 2년 이상 재직 청년 3~6개월 기술연수 지원
1.3만명, 228억원	4.5만명, 551억원	200명, 72억원

15-① 지역혁신중심 대학에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.

◆ **(교육)**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*

* '24년 QS 세계대학순위평가 500위권 내 국내대학 13개중 8개가 수도권 위치

◆ **(일자리·산업)** 지역의 인재*는 수도권으로 떠나고 기업**은 지역을 찾지 않는 지역 산업·일자리 공동화 현상이 심화

* 시·도간 전출 사유(%,'23년): (직업) 35.0, (가족) 26.6, (주택) 18.0, (교육) 8.5

** 수도권 소재 기업 중 61.7%가 지방이전 및 신·증설 의사 없음(대한상의, '23)

① **(교육)** RISE 2조원 지원하여 지역주도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

○ 글로벌대학 확대(+5개교) 통해 지역대학의 세계수준 혁신·성장 유도

Before '24년 1.2조원	After '25년 2.0조원
▶ 중앙이 대학 재정지원 권한 보유	▶ 지자체 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 보유
▶ 중앙 표준화 방식 지원 → 지자체 발전계획과 연계 미흡	▶ 지방 맞춤형 방식 지원 → 지자체 발전계획 연계·반영
▶ 별도 전문기관 수행	▶ 지역 RISE 센터 수행

◆ (해외) 스웨덴 지방정부(말뫼시)는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바탕으로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변모

② **(취·창업)**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취·창업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내 창업부터 정착, 글로벌 진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

○ 지역산업 연계 전문인력 양성, 채용연계, 주거비용 지원 등 **신규** 지역 특화형 청년 취업·정착 지원 패키지 신설(5개)

○ 특화산업 연계 대학 내 창업 지원프로그램 확대(1→10개) 하고 **신규** 우수 지역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(100개사)

③ **(산업 스케일업)** 수도권에 버금가는 역동적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지역투자촉진 및 선도기업 R&D를 지원

○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과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투자 촉진보조금 투자건당 지원한도 **상향**(100→150억원)

○ 지역 경제기여도가 높은 주력산업 전략품목 기술애로 해소를 지원*하여 유망기업 스케일업 동력 확충

* **신규**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(R&D): ('25) 216억원

15-②. 3·2·1 교통혁신과 교통불편 제로(이)에 집중투자합니다.

1 도시·광역 교통망으로 “출퇴근 30분” 혁신 ^(’24)1.1조 → ^(’25안)1.3조

지역거점 도시철도망 구축 (3,473억원)

울산 1호선·대구 엑스코선 설계착수 (199억원)



대전 2호선(트램) 신규 착공 (230 → 587억원)

GTX B·C 개통 지원 (3,968억원)

GTX B 인천 → 서울역 | 95분 ▶ 30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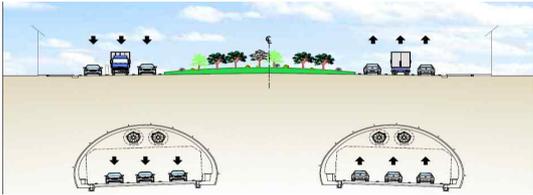


GTX C 덕정 → 삼성역 | 75분 ▶ 29분

2 수도권 간선망 확충으로 “전국 2시간” 생활권 조성 ^(’24)0.6조 → ^(’25안)1.0조

지하고속도로·철도 시대 개막 (48억원)

경부 고속도 용인 → 양재 | 50분 ▶ 20분



철도 지하화 선도지구 기본계획 수립 (20억)

고속철도 병목구간 개선 (3,551억)

평택-오송 병목구간 선로 확대 (2,500억원)



고속운행 저해하는 노후 선로시설 181개 개량

3 신공항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“전세계 1일” 이동 ^(’24)0.8조 → ^(’25안)1.3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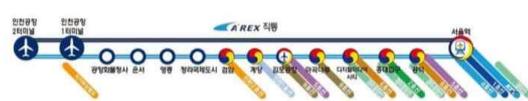
가덕도 등 新공항 지원 (1조 1,505억원)

가덕도(9,640억) 대구경북(667억) 제주제2(236억)



공항 접근도로·철도 확충 (2,005억원)

'25년 인천공항철도 증차(28→37편성) (1,024억원)



가덕도 신공항 연결도로 (169 → 796억원)

4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으로 “교통불편 Zero” 구현 ^(’24)0.3조 → ^(’25안)0.5조

대중교통 부담완화(K 패스) (2,375억원)

지원내용	'24년	'25안
가입자 수	185만명	360만명
다자녀 가구	20%	30~5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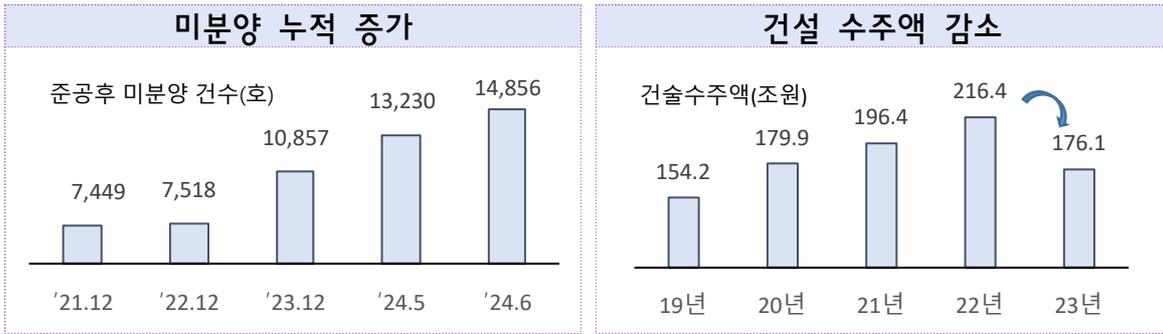
생활밀착 필수노선 확대 (1,882억원)

지원내용	'24년	'25안
준공영제 노선	214개	250개
연안여객항로	11개	15개

15-③.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.

◆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주택 누적('21년 7,449호 → '24.6월 14,856호)

◆ 건설업 폐업 증가('20년 1,212건 → '23년 1,948건 / 119천 개)



① **(주택)** 기축매입임대 지방물량 및 임대주택 리츠출자 확대로 미분양 리스크를 완화하여 지방 주택시장 회복 지원(1.1→1.6조원)

분야	지원내용	'24년	'25안
기축매입임대	배분 방식	수도권 위주	지방물량 확대
	공급물량	1.0만호	1.3만호
임대주택 리츠	분양물량 임대전환 지원	1.0만호	최대 1.5만호

② **(인프라)**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고, 주민의 생활 편의를 “작지만 신속하게 개선가능한 지역밀착형 인프라” 투자 확대(6.4→7.3조원)

분야	지원내용	'24년	'25안
정주 인프라	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	-	30개
	농촌정비	92개	122개
교통 인프라	국도 병목구간 개선(신규)	75개	100개
	노후 교량·터널 보수	2,513개	2,698개
안전 인프라	국도 배수장비 교체	-	32km
	농촌 배수시설 보수	253개	286개

16.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.

◆ 소아·응급 등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심화*로 “응급실 뺑뺑이”, “소아과 오픈런” 등 필수의료 공백 발생

* 전공의 충원률(% '19→'22): ▲소청과 92→28 ▲산부인과 73→69 ▲흉부외과 63→35

◆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→ 지역의료 적자 확대 및 투자 부족 → 환자들의 지역의료 외면 악순환 발생

'25년 재정 2.0조원, 향후 5년간 재정 10조 + 건보 10조^{+α}
인력 양성,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, 지역·시간대별 의료공백 해소

“필수분야 의료인 확대”

- ✓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(9천명 대상, 교육비, 0.3조원)
- ✓ 필수과목 전공의 수당 지원 확대 (220명 → 4,600명, 月 100만원)
- ✓ 의대 시설·장비·교수 대폭 확충 (0.4조원)

“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”

- ✓ 소아전문응급센터 확대(12→14개소)
- ✓ 응급헬기(9→10대, 출동수당 30만원),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확대(14→56대)
- ✓ 소아암센터 장비 확충(5개소), 양성자치료기 등 첨단 장비 도입

“가까운 곳에서도 양질의 진료”

- ✓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수술·중환자 진료역량 고도화(0.1조원)
- ✓ 지역거점병원 시설·장비 확충 및 운영비 한시 지원(0.2조원)
- ✓ 중환자실 원격 협진 등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

“빈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”

- ✓ 야간·심야약국 3배 확대(64→220개소)
- ✓ 야간·휴일에도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(45→93개소)
- ✓ 주요 응급질환 지역별 순환당직제 운영 (지역내 최소 1개 병원은 당직)

17. 국격에 걸맞는 ODA, 우리기업·청년과 함께하겠습니다.

◆ 그간 ODA 지속 확대 →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

* '23년 ODA 규모(억불 '24.4): (美) 660(1위), (獨) 367(2위) (日) 196(3위) (韓) 31(14위/31개국)
ODA/GNI(%): (美) 0.24(22위) (獨) 0.79(4위), (日) 0.44(12위), (韓) 0.18(28위/31개국)

◆ 우리기업·청년 해외진출 등과 연계한 전략적 ODA 필요

ODA 지속 확대 + 우리기업·청년 연계 등 국익 확보

- **(양적확대)** 국제 위상에 걸맞는 ODA 양적확대 (6.3 → 6.7조원)
- **(국익제고)** 우리기업·청년 진출, 전략지역 지원 강화
 - **(기업진출)** 우리 금융기관을 활용한 개도국 현지 중소기업 지원 (신규1,297억원), 개발협력 전문가 양성(신규EDCF 아카데미, 12억원) 등
 -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현지 사업관리자 운영(+48억원)
 - **(청년교류)** 해외봉사단(0.5 → 0.6만명, +166억원) 및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인 장학생 확대(0.6 → 0.7만명, +154억원)
 - **(전략지역)** 성장잠재력이 높고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, 중앙아시아 등 전략지역 집중 지원(+1,810억원)
 - 우리 경쟁력이 높은 그린·보건·디지털 분야 투자확대(+1,567억원)

구분	주요내용	'24년	'25년
기업 진출	○ 민간 금융기관 협력지원 프로그램 등	2.1	2.3조원
청년	○ GKS 장학생 확대 + 선발트랙 다양화 * 국제기구 연계 지원, 우크라이나 재건인재 등	0.6만명	0.7만명
전략 지역	○ 아프리카: 쌀 원조확대(10→15만톤) 등 ○ 중앙아시아: 병원, 에너지 등 유·무상 협력확대	0.9 0.16	1.1조원 0.2조원

18.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는 군 복무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

- ① **(병 봉급)**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205만원으로 인상하고, 전역 후 2,000만원 수준의 자산형성을 지원

	지원내용	'24년	'25년
병 봉급	병 봉급 205만원 약속이행	165만원 (4.3조원)	205만원 (5.1조원)
급여	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	125만원	150만원
내일준비지원	전역시 2,000만원 목돈 마련	40만원	55만원

- ② **(주거·생활시설)** 1인 1실 간부숙소 제공을 26년까지 마무리하고, 국민평형 관사 확충 및 2~4인실 병영생활관 지속 추진

	지원내용	'24년	'25년
1인 가구형 간부숙소	퇴근 후 휴식 보장 및 잦은 이사를 고려한 풀옵션 1인1실 제공(~'26년)*	4,107억원 (3,665실)	6,048억원 (2,276실)
국민평형 관사	다자녀 군인 가족을 위한 국민평형 85㎡(30평대) 관사	731억원 (415세대)	989억원 (484세대)
2~4인실 병영생활관	8~10인실(공용 화장실·샤워실 사용) → 화장실·샤워실을 갖춘 2~4인실	320억원 (118동)	782억원 (187동)

* 간부숙소 연차별 준공·확보계획: ('24년) 3,665실, 4,107억원 ('25년) 2,276실, 6,048억원 ('26년) 6,401실, 8,047억원

- ③ **(전사 육성)** 생존성·전투력 제고를 위한 개인 전투장비를 확대 보급하고, 실전적인 훈련 환경 및 전천후 체력단련 여건 보장

	지원내용	'24년	'25년
워리어 플랫폼	모듈형방탄헬멧·고성능확대경·조준경 등 개인 전투장비	334억원 (54.8% 보급)	417억원 (71.1% 보급)
과학화 훈련장	실기동·실사격 전술훈련시설 (목표 15개소 중 13개소 반영)	4개소 (155억원)	9개소 (261억원)
전투체육시설	전천후 체력단련·훈련을 위한 실내전투체육관·연병장현대화	-	29개소 (32억원)

19. AI를 활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수사로 일상 속 마약·지능형 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.

◆ 서울대 N번방 사건, 10대 마약범죄 등 일상 속 첨단·지능형 범죄가 증가*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
* 주요 범죄 사건 접수 현황(명)

	'19	'20	'21	'22	'23
디지털성범죄	2,087	4,973	6,952	7,979	8,983
마약범죄	16,044	18,050	16,153	18,395	27,611

“최첨단 수사 + 철저한 예방 + 두터운 보호”

① **(최첨단 수사)** 가상자산, 다크웹 모니터링으로 마약을 원천차단하고, AI를 활용한 첨단수사로 딥페이크, 보이스피싱에 대처합니다.

○ 가상화폐 추적 서비스: 8건 → 36건

다크웹 모니터링	비대면 마약 유통거래를 실시간 감시
AI영상·음성 분석	딥페이크 영상 2차 피해 예방 및 보이스피싱 신속 차단

② **(철저한 예방)** 정신질환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를 확대하고, 청소년 야간외출금지 및 24시간 보호관찰을 확대합니다.

○ 정신질환자 심리·입원치료: 689명 → 1,379명

야간외출금지	스마트워치 활용 청소년 야간외출금지 945 → 2,309명
24시간 보호관찰	지자체 CCTV 연계 보호관찰소 6 → 12개소

③ **(두터운 보호)** 2차 피해에 대비해 밀착 경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,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역대 최고로 인상합니다.

○ 밀착 경호서비스: 수도권 100명 → 전국 350명

생계비 수혜 확대	1인 가구 50 → 70만원, 6 → 12개월
장례비 한도 인상	1인 400 → 500만원

20. 전기차 화재 · 극한호우,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

- ◆ **(전기차 화재)** 전기차 화재, 배터리공장 화재 등이 지속 발생 중이나, 화재진압 기술 개선 지연 등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
- ◆ **(집중호우)**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호우 등 수해의 강도가 커지고 있으나, 단편적 정비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효과 제한적

新유형·高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

- 1] **(전기차화재)** 배터리 과충전 제어와 이상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(2.3→9.5만기) 등 장비 확충
-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성 분석 및 대응기술 등 연구투자 강화

장비확충 (‘24년 3,275 → ‘25안 6,230억원)	기술개발 (‘24년 39 → ‘25안 129억원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(2.3→9.5만) ▶ 무인파괴방수차 (+6대) ▶ 전기차 화재진압 특수장비 (3종*, 63개) * 이동식수조·질식소화덮개·관통형 방사장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 개발 ▶ 리튬금속 적용 소화약제 개발 ▶ 화재 대응 및 관제시스템 기술 표준화

- 2] **(집중호우)** 재해위험요인 일괄 정비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대폭 확대 (신규18→35개소)

- 지역별 재해위험 유형을 고려한 하천정비·배수개선 및 사방 시설 등 지역맞춤형 개별사업도 지속 확대

* 국가하천정비(환경부) : (‘24) 6,627 → (‘25안) 6,794억원
 배수개선(농림부) : (‘24) 4,535 → (‘25안) 4,852억원
 사방사업(산림청) : (‘24) 2,510 → (‘25안) 2,784억원